

햇빛, 공기, 물: 티엔리밍 중국화전

Light, Air, Water - Chinese Ink Paintings by Tian Liming

阳光、空气、水 ——田黎明中国画展



전시명 : 햇빛, 공기, 물: 티엔리밍 중국화전

Light, Air, Water - Chinese Ink Paintings by Tian Liming

阳光、空气、水 ——田黎明中国画展

일 시 : 2014년 5월 23일(금) - 6월 15일(일) 24일간

장 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품작 : 33점

1. 전시 개요

학교재갤러리는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중국의 대표 현대수묵화가 티엔리밍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1955년에 태어난 티엔리밍은 현재 베이징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 열리는 티엔리밍의 첫 번째 개인전이다. 그의 대표작 33점을 선보이는 자리로 <시골 처녀>, <도시>, <수영>, <고사(高士)>, <화조>, <88담목시리즈> 여섯 개의 연작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시 제목인 '햇빛, 공기, 물'은 티엔리밍 작품의 골자이며 동시에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이다. 그는 작품에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부드러운 햇살과 어울려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아름다운 공존에 대한 희망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중국 전통 수묵화에 기초한 새롭고 개성적인 작품을 창조해낸 티엔리밍은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 언어를 통해 중국 인물화의 지속과 번영에 기여했다. 인물의 구체적인 형태를 흐릿하게 만들어 특징과 형상을 약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티엔리밍의 작품을 더욱 세련되고 다채로워 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작품 안에 가득 찬 몽환적인 분위기는 보는 이를 마치 신비한 파라다이스에 도달한 듯 한 느낌으로 이끈다. 관람자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통합, 자유와 생명력을 느끼며 조용하고 평안한 정신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2. 전시 구성

사람



산야 山野, 2012, 종이에 수묵, 47.8x70cm

작가는 향촌에서 자라던 유년시절의 기억과 그곳의 청정 자연,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작품에 옮긴다. 그의 작품 중 <시골처녀>, <고사(高士)> 시리즈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부드러운 햇살이 공존하는 시골에서 이와 어울려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주제는 중국의 유가와 도가를 통틀어 관철하는 핵심인 '천인합일(天人合一)'과도 일맥상통하며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조화로운 인생 추구를 지향한다.

자연



샘 샘, 2005, 종이에 수묵, 47x56cm

티엔리밍의 작품은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한편, 자연에서 '도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통문화 관념을 현대에 맞게 전환시킨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의 작품 중 <수영>, <화조> 연작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작가의 견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만물의 모체인 자연의 깊고 완전함에 대하여 '샘'의 이미지를 빌어 아래와 같이 노래하였다.

하나의 고요한 움푹한 땅, 못 산의 나무에 기대어, 줄곧 샘 물을 빨아 마신다.

빛방울, 가득하게 누적되어 가지런하게 형성된 개울.

비록 깊지는 않지만, 맑고 투명한 물, 오직 산과 나무의 선명한 그림자, 물속에 비치는 쪽 빛 하늘.

산 그림자를 따라 가득히 넘치는 물, 푸른 하늘, 햇빛 아래 마치 백색의 젖 한 방울과 같이 천천히 못 산 녹수로 모여 든다.

도시



자동차 시대 汽车时代, 2006, 종이에 수묵, 69.4x49.8cm

과학기술은 현대 사회에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하였고, 삶의 속도를 가속화하였다. 사람들은 긴장한 채로 분주하게 지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티엔리밍은 현대 사회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국 전통의 인본주의를 <도시> 시리즈를 통해 역설한다.

작가는 '수묵'이라는 전통적인 회화의 언어와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조합하여 과거 조화롭던 인간관계의 재건을 상기시키고자 했다. 그의 작품에 도시인들은 전원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이웃, 동료처럼 낮익은 도시인들을 두루 포괄한다. 작품 속 도시 사람들의 익숙한 미소, 행동은 그들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

3. 전시 서문

티엔리밍(田黎明)과 그의 현대 수묵화

인지난(尹吉男)

티엔리밍(田黎明)은 중국 현대 최고의 활력 있는 수묵화 대가이다. 지난 1980년대 중반에 중국 예술계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한 계열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작품들을 창작했다. 티엔리밍이 1988년 당시 권위 있는 “신문인화전(新文人画展)”에 참가했는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중국에는 “신 문인”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신 문인”은 과거 정치적 성격을 띤 사실주의(寫實主義) 수묵화를 종결하고, 요즈음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신 수묵(新水墨)”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중앙미술학원(中央美術學院)의 교수직을 맡았던 그는 줄곧 수묵 인물화의 형식언어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고사(高士), ‘시골 처녀’ 및 ‘도시’를 주제로 한 창작물 시리즈를 멈추지 않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이 단순히 자아를 복제하는 것에 그치는 ‘유희(遊戲)형’ 화가가 아닌 진정한 ‘창작형’ 화가임을 증명해냈다. 그림 속에 존재하는 공기, 물, 햇빛은 주제 인물과 상호 작용을 이룬다. 특히, 그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묘사는 그의 실험적 정신과 시도가 당시의 시대상을 대변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치 이태백의 시 한 구절 “내가 춤을 추니 그림자가 어지러이 움직이는구나(我舞影零乱)”를 연상케 한다. 그는 묘사하기가 까다롭고 변화무쌍한 해 그림자를 표현하여 당대(唐代) 옛 시인이 읊어왔던 달 그림자를 대신하기도 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문인 화가 중 변화무쌍한 해 그림자를 훌륭히 묘사해낸 이는 없다.)

그의 예술은 구상적이며 동시에 사의적이다. 빛과 색에 대한 예민함과 세심함은 마치 인상주의(印象主義)를 연상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티엔리밍은 수묵 표현에 대한 자신의 예민함과 정밀함을 색채에까지 적용하여 살아 숨 쉬는 듯한 색감을 이루어냈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그는 “마치 먹을 사용하듯이 색을 사용”하였고 색채를 사용하여 수묵을 사용한 것과 똑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현대의 방식으로 수묵과 색채의 조화를 더욱 부각했고, 중국 고대 “몰골법(沒骨法)”의 심오한 전통을 부활시켰다.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의 특색을 더욱 선명히 해냈다.

그의 작품을 자세히 음미해보자면, 그의 계열별 창작물 시리즈 모두 흥미롭고 동시에 깊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고전적 문인을 묘사할 때면 그는 고대(古代)의 고사(高士)를 현재의 인물로 묘사했으며, 일부 문인의 이미지 형상은 민국(民國)시기 촬영에서 흔히 사용하던 “포즈를 취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여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시골 처녀를 묘사할 때는 현대 시골 아가씨를 아주 우아하게 표현하여 문인의 정서를 갖도록 한다. 도시의 소재를 묘사할 때는 현대 도시 생활을 전인화하여 작가의 숨겨진 이상을 담기도 했다. 그는 늘 이중 요소로 그림에 영혼을 불어넣고 이를 통하여 예술에서의 자신의 내재적 정신의 특성을 형성하였다.

티엔리밍과 나의 우정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서로 아주 많은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었고, 학술적인 토론도 나누었다. 그의 온화함과 겸손함, 그리고 총명함은 그의 서술과 창작에 그대로 반영되어 언제나 함축적이고 영민한 매력이 넘쳐났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펴기보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함께 공감대를 누리는 것을 즐겼다. 나는 늘 그의 서술과 창작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곤 한다.

학교재에서 이번에 개최하는 회화 전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티엔리밍의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회가 한국의 각계 인사들에게 중국 현대 수묵화 대가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문화 사건이 되기를 바란다.

2014년 3월 20일 베이징 방주원(方舟苑) 서재에서

4. 작가 약력

티엔리밍(田黎明, 男, 1955년 5월 3일 베이징 출생)은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시(合肥市) 출신으로 1971년 군에 입대하여 사병, 문화 간사(幹事), 전문 창작원을 담당하였다. 1982년 중앙미술학원에서 연수하였고 1984년 학교에 남아 중앙미술학원 중국화과에서 교편을 잡았다. 1989년 중앙미술학원 중국화과 루첸[卢沉] 교수의 석사 연구생으로 입학하였고 1991년 문학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화과 부학과장을 역임하였고 2002년에는 중앙미술학원 중국화과 학과장직을 맡았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미술학원 중국화학원(中國畫學院) 원장을 담당하였고 2009년에는 국가화원(國家畫院) 부원장을 담당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예술연구원(中國藝術研究院) 부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중국미술가협회 이사, 중국화예술위원회 부주임, 중국화학회 부회장, 북경미술가협회 부주석, 중국예술연구원 박사지도교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무원 특별 수당을 받고 있다. 2008년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스티튜트 명예교수로 초빙되었다.

주요작품으로는 ‘향촌’, ‘도시’, ‘햇빛아래에서 수영하는 사람’, ‘티베트’, ‘고사(高士)’, ‘사람과 자연’, ‘화조’, ‘테마 창작’, ‘스케치’ 등을 주제로 하는 창작물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그 가운데서 중국화 《비림(碑林)》은 전국 제6회 미술전시회 우수상을 받았고 《넋물》은 베이징 88국제수묵화전시회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햇빛아래 수영하는 사람》, 《해바라기》 등은 93비평가 추천 전시회에 출품했다. 《뢰봉(雷鋒)》은 중국공산당 창립 80주년미술작품전에 출품했으며 《티베트의 햇빛》, 《진성(進城, 도시에 들어가다)》은 베이징 제2회, 제3회 국제미술비엔날레에 연달아 출품하였다. 화집 《티엔리밍 화집》(영보재(榮寶齋)), 《티엔리밍 화집》(광서미술출판사), 《티엔리밍 전집》(영보재), 《당대 신진 문인화 대계(當代新文人畫大系)·티엔리밍 화집》(하북교육출판사) 등과 문집 《햇빛에 들어가다》, 《인연과 물건은 물과 같다》를 출판한 바 있다.

개혁개방 30년 동안, 중국의 전통문화정신은 현대에 이르러 생기와 활력을 얻게 되었다. 이는 중국화의 수묵 언어가 역사의 문맥 계승 과정에서 어떻게 현대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주었다. 티엔리밍의 예술 체험과 미적 가치관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그는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자연적으로 ‘도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통문화 관념을 현대 문화 환경에 맞게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는 시종일관 전통 문화의 정수를 피부로 느끼며 ‘도심을 품고’ ‘화합’한다는 심미적 이상을 유가의 인생철학과 결합하여 평범함과 천진함을 추구하는 미적 가치관을 그의 작품에서 형성하였다. 그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창작의 법칙으로 하고 여러 해 동안의 예술 창작을 몸소 실천하는 과정에서 ‘융염법(融染法)’, ‘연체법(連體法)’, ‘위묵법(圍墨法)’의 중국화 수묵 표현 방식을 점진적으로 탐구하고 형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전통적인 몰골법[沒骨法]을 토대로 더욱 깊이 있는 발전과 완성을 이루었다. 그는 전통적인 몰골법[沒骨法]을 체계적으로 확장 및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로써 전통적인 수묵의 표현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력이 충만한 생명력과 생기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독특한 예술 언어는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天人合一)’ 인문 인식을 전달하였으며 자연, 사회, 사람의 정신적 경지와 시대의 숨결을 체험하여 조화로운 인생 추구를 노래하였다. 동시에 빛에 대한 표현은 그의 필묵으로 하여금 더욱 획기적으로 색채와 빛의 감각을 갖고 동방인의 세심한 감성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심미 이상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티엔리밍의 화풍은 중국화 필묵의 전통을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턴을 개척할 중국화의 방향을 표현하였다.

그의 많은 작품에는 온건함과 평안함 그리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아름다움이 담겨 있으며 이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인생(서민)에 대한 나날이 강렬해지는 그의 책임감, 그리고 진선미(眞善美)에 대한 체험 및 감흥은 ‘햇빛, 공기, 물’의 주제로 전환되어 중국 문화의 평온한 예술적 경지가 작품 속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는 평온한 화풍을 만들어내었고 그에 맞는 기교와 기법을 모색하여 예술적 경지로 승화시켰으며 수묵화의 정신과 형식 탐구 두 가지 측면에서 뛰어난 공헌을 하였다. 티엔리밍은 과감함, 탐구적 정신, 창조성을 갖춘 ‘학자형’ 예술가이다. 그는 자각적인 문화 사고방식과 참신한 예술 창조 및 실천으로 중국 수묵 인물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중국 수묵화의 시대적 변혁의 길에서 큰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만 아니라 중국화의 시대적 전환과 시대를 아우르는 미적 가치관의 진화와 발전을 탐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